10-04(통권 제4호)
2010.03.31

Trust
Talent
Tenacity
Togetherness

동북아 REVIEW

최근 일본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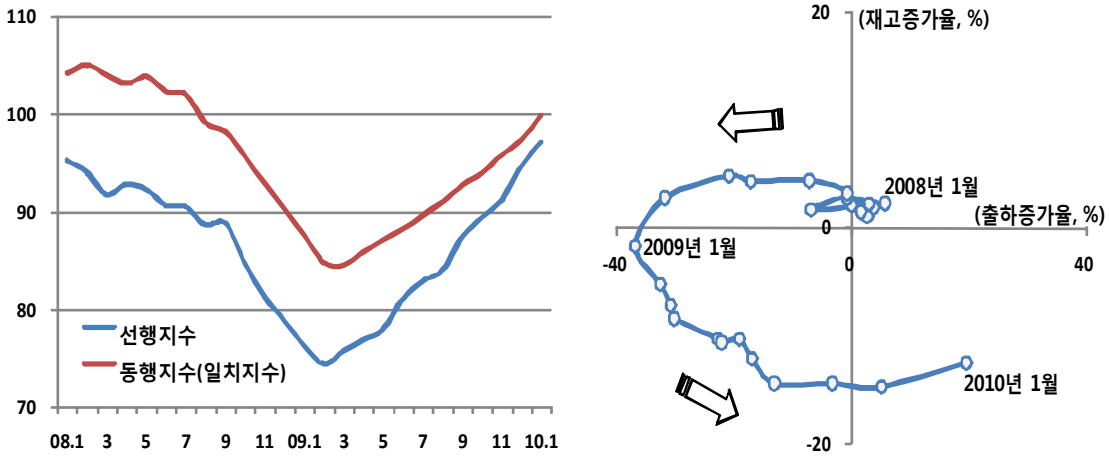
現代經濟硏究院
HYUNDAI RESEARCH INSTITUTE

□ 최근 일본경제 동향

○ 현 경기 국면 판단

- **일본 경제는 경기지수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**
  - 경기선행지수는 2009년 2월 74.4를 저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, 동행지수도 3월 84.5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
  - 재고-출하 사이클상 재고가 감소세가 둔화되고 출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회복 국면으로 판단
  - 단, 일본 내각부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의 침체에 따른 반등에 불과하며 고실업 문제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중이라고 언급

< 일본의 경기지수 및 재고출하 지수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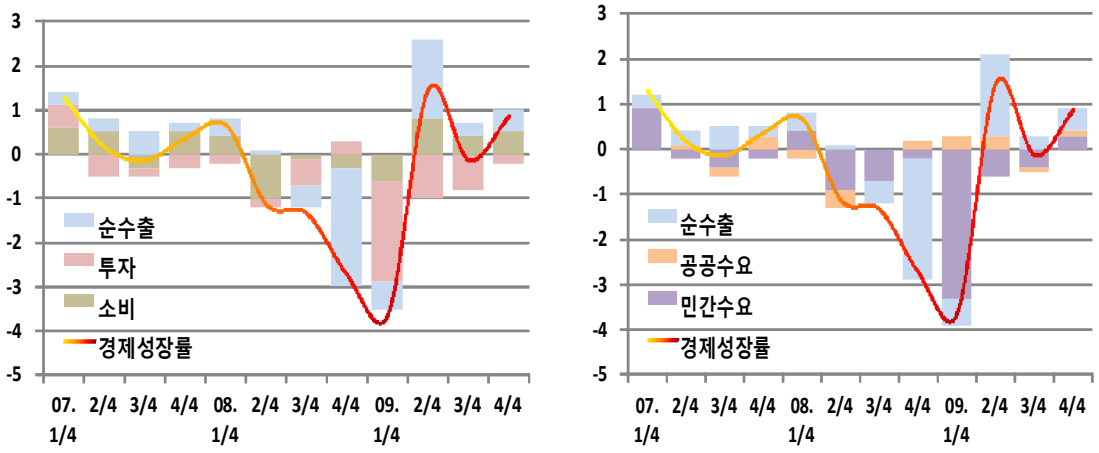
자료: 內閣府, 經濟産業省.

- **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순수출, 소비,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2009년 1/4분기 이후 상승 추세**
  - 일본 경제성장률은 2009년 1/4분기에 전기대비 -3.6%에서 2/4분기 1.5%, 3/4분기 -0.1%, 4/4분기 0.9%로 개선되는 추세를 시현

· 국민계정상 수요 부문별로는 순수출과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투자는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· 공공 부문 수요는 일본 성장률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, 민간 수요는 2009년 4/4분기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며 성장을 견인

<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기여도(전기비, %, %p) >



자료: 內閣部.

○ 부문별 동향

- (소비) 지표상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회복 강도가 미약하여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임

· 전체적인 소비 경기를 나타내주는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2009년 12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1월에 들어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

· 자동차판매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내구재 소비도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

· 이러한 소비 부진은 고용 침체와 소득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

※ 가처분소득은 12월 6.4% 감소에서 올해 1월에 1.9% 감소로 침체폭이 축소되는 정도이며, 특히 고용시장은 5% 내외의 높은 실업률(계절조정 실업률)을 지속중

< 일본의 소비 및 소득 관련 지표 >

(전년동기비, %)

	2009							2010
	연간	1/4	2/4	3/4	4/4	11월	12월	1월
개인소비지출 증가율	-1.8	-2.1	-0.6	-2.5	-2.0	-2.1	-1.7	0.0
자동차판매액 증가율	-31.3	-36.3	-37.3	-32.4	-19.0	-18.9	-10.9	0.4
가처분소득 증가율	-3.3	-2.1	-1.8	-3.8	-5.3	-3.2	-6.4	-1.9
실업률	5.1	4.5	5.1	5.4	5.2	5.3	5.2	4.9

자료: 經濟産業省, 總務省.
주: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.

- (설비투자)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제조업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

· 기계수주액은 11월 20.5% 감소에서 12월 1.5% 감소로 개선된 이후 올해 1월에도 1.1%의 감소율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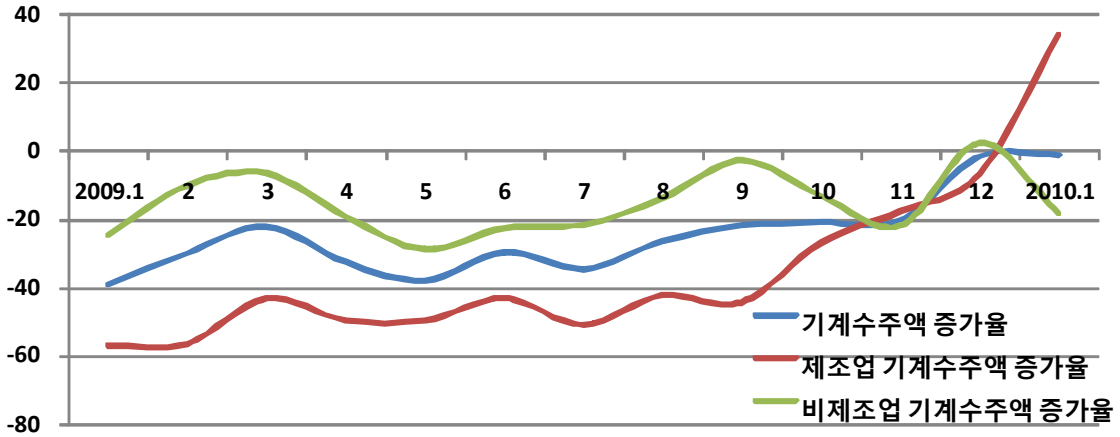
· 그러나 업종별로는 1월중 제조업 기계수주액이 34.3% 증가한 반면, 비제조업이 18.3% 감소하는 경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

· 이는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내수 경기는 상대적으로 침체를 지속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

· 한편 기업심리지표들이 전체적으로는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
< 일본의 설비투자 관련 지표 >

(전년동기비, %)



자료: 內閣部.
주: 민간부문 기준.

- **(건설투자) 민간 건설 부문 회복세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공건설 부문의 경기안정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**

  · 신설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2009년 3/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4/4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

  · 사무용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건축물 착공 면적도 4/4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23.7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

  ·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발주를 모두 포함하는 공공건설공사수주 증가율은 2009년 4/4분기까지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

< 일본의 건설투자 관련 지표 증가율 >

(전년동기비, %)

	2009							2010
	연간	1/4	2/4	3/4	4/4	11월	12월	1월
신설주택착공호수	-5.2	-10.2	-14.3	-7.2	11.0	3.8	3.3	5.4
비주거용건축물착공면적	-8.6	-1.1	-34.9	-1.1	2.8	16.0	-15.1	23.7
공공건설공사수주	-27.5	-34.6	-31.6	-25.4	-18.4	-11.6	0.6	15.7

자료: 國土交通省.
주: 신설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착공호수에 대한 계절조정 연간환산후 전월비 기준.

- **(수출)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경기를 견인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 선진국 수출도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**

  ·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對 중국 수출은 지난 4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.2% 증가한 데 이어 1월에는 78% 증가율을 기록

  · 한국과 ASEAN에 대한 수출도 4/4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시현

  · 1월중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침체폭을 감안한다면 회복 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

  · 1월중 대부분 수출품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반도체(전년동월대비 81.2% 증가), 화학제품(71.4%), 자동차(57.5%) 등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

< 일본의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>

(전년동기비, %)

수출 대상국	비중	2009							2010
		연간	1/4	2/4	3/4	4/4	11월	12월	1월
총수출	(100.0)	-25.1	-38.4	-34.9	-24.9	2.9	1.4	18.7	39.4
중 국	(18.9)	-11.6	-29.3	-22.1	-11.5	22.2	16.6	51.3	78.0
한 국	(8.1)	-19.9	-33.2	-30.5	-22.7	16.9	16.8	35.9	40.0
미 국	(16.1)	-31.2	-47.0	-39.7	-26.8	-6.3	-0.4	-2.1	22.9
EU 27	(12.5)	-33.8	-45.0	-40.7	-35.3	-6.6	-9.2	7.5	10.0
ASEAN	(13.9)	-21.7	-37.1	-34.3	-18.6	6.4	3.4	24.1	54.3

자료: JETRO Japan'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(Monthly).
주: 달러 베이스 기준 증가율이며, ( ) 안은 2009년 연간 기준 비중을 의미.

○ 종합 평가 및 전망

- 현재 일본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나, 경기 회복세가 소비와 기업투자 등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

· 특히 디플레이션(deflation)과 높은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 할 경우 경기 재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
· 일본정부는 긴급경제조치(Emergency Economic Measures)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2009년 공공부문의 경기안정책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

- 일본경제가 이러한 대내적인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면 2010년 1%대 중후반의 성장률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

< 주요 기관의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>

(%)

전망기관	2007	2008	2009	2010(E)	2011(E)
IMF	2.3	-1.2	-5.2	1.7	2.2
세계은행				1.3	1.8
OECD				1.8	2.0

자료: IMF「World Economic Outlook」(2010. 1월), World Bank「Global Economic Prospects」(2010. 2월), OECD「OECD Economic Outlook」(2009. 11월). HRI

주 원 연구위원 (juwon@hri.co.kr, 02-2072-6235)